

# 「曹神仙傳」群의 인물 형상화 방식과 작가의식

윤태식(서울시립대)

## 〈 목 차 〉

1. 서론
2. 「曹神仙傳」群의 서사단락
3. 「曹神仙傳」群의 인물형상
4. 「曹神仙傳」群에 나타난 작가의식
5. 결론

## 1. 서론

조선후기에 이르러 시장이 번성하게 됨에 따라 상공업이 발달하고 새로운 직업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서적 중개상, 이른바 책 거간꾼이다. 이러한 책 거간꾼을 다룬 작품으로 「曹神仙傳」<sup>1)</sup>을 들 수 있다. 「조신선전」은 제목과 내용상에 있어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정약용, 서유영, 조수삼, 조희룡 등에 의해 창작되었다. 이들 작가는 모두 동시대인으로 서울에 거주하면서 새로운 시장 경제의 활성화에 따른 새로운 직업형태인 책 거간꾼

1) 조수삼의 전(傳) 작품에서는 「鬻書曹生傳」으로 되어 있으며, 서유영의 작품은 전이 아닌 야담의 형태로 전하고 있으나 서유영, 정약용, 조희룡의 작품에서 그가 '조신선'이라고 불렸다고만 했을 뿐 다른 이름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들 작품을 통칭할 때 편의상 「조신선전」이라고 하겠다.

에 대해 나름의 시각을 가지고 주목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고찰을 통해 당대인들이 새로운 직업인에 대해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이를 문학적으로 형상화 시키고 있는지 알아보는 일은 당대 사회상과 관련하여도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각 작품의 인물 형상화 방법의 분석을 통해 작가에 따라 어떠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지를 고찰하여 작품상으로 드러나는 작가의식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문학작품이 생성되는 과정을 살펴보는 데 있어 사회의 변화를 감지하는 작가 의식을 살펴보는 것도 문학작품을 연구하는 기본적인 토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이들 작품의 서사단락을 간략하게 살펴본 후, 입전인물에 대한 인물형상화의 방식을 중심으로 그에 따른 작가의식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간 「조신선전」에 대한 연구는 조신선의 신분인 서적 중개상의 입장에서 주목한 이민희의 연구<sup>2)</sup>를 제외하고는 주로 문학적인 측면에서 이뤄져 왔다. 이들 연구들은 조수삼의 작품과 정약용의 작품의 차이에 대한 박희병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sup>3)</sup>, 작품 자체에 대한 연구보다는 대개 입전인물을 유형상으로 분류하여 중인층 작가들의 문학적 특질을 규명하기 위해 참고하는 식의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sup>4)</sup>, 개별 작가들의 작가의식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보조적인 역할만을 해왔을 뿐이다.<sup>5)</sup> 때문에 각기 다른 작가에 의해 창작된 「조신선전」이 인물 형상화의 측면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그에 따른 작가의 창작 의식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동일인물을 다루고 있으나 서유영의 작품<sup>6)</sup>은 한문학의 창작양식으로서 전

2) 이민희, 『16~19세기 서적 중개상과 소설·서적 유통관계 연구』, 역락, 2007, 73~80면.  
 3) 박희병, 『한국고전인물전연구』, 한길사, 1992, 224~226면.  
 4) 유영주, 「조선후기 여항인 전기집 연구 - <호산외기>, <이항견문록>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9.  
 최준하, 「한국 실학과 사건의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2.  
 박승림, 「호산외기 연구」, 한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5.  
 이동근, 「조선후기 인물전의 전개양상」, 사재동 編 『한국서사문학사의 연구』5, 중앙문화사, 1995.  
 김용남, 「조선후기 중인 작가의 전 연구」,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9.  
 5) 김홍식, 「다산 문학 연구 - 전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6.  
 정병호, 「조수삼의 전 연구」, 『동방한문학』제13집, 동방한문학회, 1996.

의 형식을 따르지 않고, 향간에 떠도는 이야기를 수집한 야담의 형태로 전해지고 있으므로 작가의식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본고에서는 정약용, 조수삼, 조희룡이 창작한 「조신선전」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 2. 「曹神仙傳」群의 서사 단락

일반적으로 전은 입전인물의 대한 간략한 소개가 나오는 도입부, 입전인물의 행적을 기술하는 행적부, 입전인물의 행적에 대해 포폼(褒貶)을 가하는 논찬부의 3단 구성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성을 기준으로 각 작품의 서사 단락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볼 수 있겠는데 우선 도입부를 보도록 한다. 정약용, 조수삼, 조희룡 이들 세 작가의 작품에서 보이는 도입부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입전인물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보이고 있다. 하지만 조신선이라는 인물의 가계가 명확하지 않은 까닭에 그에 대한 소개는 다만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고 책을 파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다고만 공통되게 밝히고 있다.

입전인물의 행적을 보여주는 부분은 전 작품의 특성상 작자의 입전인물에 대한 포폼(褒貶)을 위해, 일대기 형식의 기술보다는 작자가 생각하는 입전인물의 특징적인 면모를 부각시킬 수 있는 내용을 선택하게 되는데 주로 일화의 제시가 나타나게 된다. 정약용은 그가 책을 사고파는 행위를 하며 늙지 않는다는 점을 들고 있으며, 조희룡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다. 즉 정약용과 조희룡은 그의 특징적인 면모를 책을 사고파는 행위와 그의 외양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조수삼의 경우는 신선적인 풍모가 엿보이는 일화 세 편을 주로 대화를 통해 드러내고 있기에 다른 두 작품에 비해 작품의 분량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조신선의 면모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다른 한문학의 양식과 차별성을 지니게 만드는 전만의 독특한 부분인 논찬부는 모두 작가 자신의 관점에서 조신선을 포폼(褒貶)하고 있다. 사실 전(傳)이라는 양식에 맞추고자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식의 유사성은 당연하다고

---

5) 서유영(1801~ 1853)의 『금계필담』은 상하 2권, 153면으로 된 저서로 서유영 자신이 채록한 141가지 이야기가 야담의 형태로 각 작품에 제목이 없이 실려 있다. 이중 조신선에 대한 것은 79번째로 수록되어 있다.

볼 수 있지만 입전인물이 작가에게 있어 얼마나 비중있게 다뤄지는가에 따라 도입부는 물론이고 행적부나 논찬부의 서술에 차이가 나게 마련이다. 서사 단락자체만을 두고 각 작품을 단순 비교해보아도 조수삼의 작품이 갖는 입전인물에 대한 비중이 다른 작가의 작품에 비해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서술 내용에 있어서도 앞서 행적부에서 제시한 바와 마찬가지로 보다 풍부한 일화제시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작가가 가지는 입전인물의 애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반면 정약용의 경우, 작품 전체의 분량이 230여 자(字)로 매우 짧다. 앞으로의 서술과 내용 이해를 위해 각 작품을 편의상 전의 형식에 맞추어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정약용 「曹神仙傳」	조수삼 「鸞書曹生傳」	조희룡 「曹神仙傳」
도입부	* 조신선은 책장수에 거간꾼이다.	* 그는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한다. 책을 팔며 세상을 다닌지 오래되었다	* 조신선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다. 항상 서울 성중에 돌아다니며 책 파는 것을 직업으로 삼았다.
행적부	* 고아·과처의 집에 간직된 책이라도 헐값에 사서 몇 배의 이익을 취한다. *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보아도 얼굴이나 머리털이 항상 사오십 세의 인물로 보인다.	* 존비귀천을 막론하고 찾아가는데 항상 달렸으며 이문이 생기면 항상 밥은 먹지 않고 술을 마신다. * 항상 서른다섯 살이라고 말했으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백수십년전의 이야기를 한다. * 책을 파는 이유에 대한 호사자(好事者)와의 대화	* 존비귀천의 집에 발자취가 이르지 않은 곳이 없으며 업신여기는 이가 있어도 한 번 웃고만다. * 나이를 물으면 항상 '육십'이라고 하는데 나이를 헤아려 보면 백삼사십 세쯤 되었다. * 아무 탈없이 죽었다.
논찬부	* 조신선은 욕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늙지 않으니 신선도 오히려 속태를 면치 못해 그러한 것인가.	* 조생은 도를 지니고도 스스로 숨어 완세(玩世)하던 사람이었다.	* 책을 파는 것을 스스로 즐김은 문자선(文字仙)을 보충한 한 가지가 될 것이다.

### 3. 「曹神仙傳」群의 인물형상

#### 3.1. 정약용의 「曹神仙傳」에 나타난 인물형상

정약용(1762-1836)은 주지하다시피 실학을 집대성한 학자로 잘 알려져 있으며 그가 지은 전 작품은 총 8편이 전하고 있다.<sup>7)</sup> 그 중 「조신선전」은 비교대 상인 다른 두 작품뿐만 아니라 자신이 창작한 전(傳)작품 중에서도 분량이 가장 적다. 먼저 조신선의 모습을 서술한 부분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는 빨간 수염에 농말을 잘했으며, 눈이 번뜻번뜻 마치 무슨 신이나 있는 듯 싶었다.

그는 구류, 백가의 글에 대하여 문목과 의례를 섭렵하지 아니 한 것이 없고, 말을 꿩일 사이 없이 잘하여 마치 박아한 군자와 같았다.

그는 천성이 욕심이 많아 대체 고아·과처의 집 깊이 간직된 서적이라도 반드시 혈값으로 가져다가 급기야 팔 때엔 몇 배를 남겨 팔았다. 그러므로 모든 책장수들의 미움을 받았다.<sup>8)</sup>

일반적으로 선선은 도교의 가르침에 따라 신성을 얻은 불멸의 존재를 가리킨다. 따라서 선선은 엄격한 수행을 통해 도를 깨우친 존재로서 일반인에게 무한한 동경의 대상이 된다. 무릇 선선이라는 호칭으로 불려질만한 사람이라면 으레 외양에서부터 일반인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조신선은 도를 깨우친 존재로서의 선선의 모습과는 걸맞지 않게 시정상인과 마찬가지로 농말도 잘하고 매양 신이나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 게다가 그는 일반인과 하등 다를 것 없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고아·과처의 집 깊이 간직된 서적이라도 반드시 혈값에 가져다가 몇 배의 이익을 남겨 파는 행위를 스스럼없이 일삼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비록 이 부분에는 그가 어

7) 그가 지은 전(傳) 작품으로는 「竹帶先生傳」, 「張天慵傳」, 「曹神仙傳」, 「蒙叟傳」, 「玄眞子傳」, 「鄭孝子傳」, 「金氏夫人傳」, 「貧士傳」이 전하고 있는데 이중 「현진자전」, 「정효자전」, 「김씨부인전」은 한 가문의 세 사람을 입전 한 것이고 「빈사전」은 전해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창작한 것으로 보인다.(김홍식, 앞의 글, 4면). 제목에서만 보아도 「조신선전」은 정약용의 다른 작품과는 성격을 달리함을 알 수 있다.

8) 李家源, 『李朝漢文小說選』, 敎文社, 1984, 326면.

떠한 부류에게 비싼 값으로 팔았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그 대상을 불문하고 무조건 비싸게 팔았다면 조신선은 말 그대로 욕심이 많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도가에서는 마음을 맑히고, 욕심을 없애버림으로써 승선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다. 그러나 조신선은 욕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늙지 않기를 이리하니 이 말세가 되자 풍속이 변했은즉 신선도 오히려 속태(俗態)를 면치 못해서 그런 것일까. 9)

신선은 도가의 수행을 통해서 일반인과는 다른 초월적 존재로서 먹지 않아도 굶주리지 않고 아무리 세월이 흐른다고 할지라도 늙지 않는다. 따라서 신선의 수행방법은 정약용이 위 인용문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마음을 맑게 하고 욕심을 없애버리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조신선은 욕심이 많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외양에 전혀 변화가 없어 늙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른바 조신선으로 불리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단지 외양에서 보여지는 기이한 특성 때문에 그의 명칭이 조신선일 뿐 신선으로서 가져야할 품성은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 3.2. 조수삼 「鬻書曹生傳」의 인물형상

조수삼(1762~1849)은 중인 계층으로서, 재주는 많았으나 그의 나이 팔십삼세가 되어서야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였다고 한다.<sup>10)</sup> 이처럼 그는 늙어서까지도 관직에 오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은 인물이었으며, 또한 유학자로 자처하면서 충, 효, 열을 강조한 작품들을 다수 창작하였다. 게다가 그와 신분이 같거나 낮은 계층의 인물에 대한 동정적인 시선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창작한 「추재기이」를 보면 이러한 사실이 확연히 드러난다.<sup>11)</sup> 따라서 그

9) 위의 책, 327면.

10) 조희룡,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譯註, 『조희룡전집』5, 144면.

11) 총 71편의 단편을 담고 있는 「추재기이」는 조수삼 말년의 저작으로, 산문으로 이루어진 간단한 서사와 이 내용을 시로 읊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추재기이에는 다양각색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 모두 여항의 인물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그가 자신과 동류의 계층 또는 낮은 계층에 대해 동정적인 시선을 보인다고 할 수 있는 가장 단적인 예는 일지매를 헐도로 본다

가 지은 전 작품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날 것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는데 바로 「육서조생전」이 그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조수삼은 다른 작가의 작품과는 달리 조신선이라는 호칭보다는 일반적인 사람을 일컬을 때 성 뒤에 붙여 사용하는 ‘생’을 넣어 부르고 있으며 대화를 통해 조신선의 형상을 유추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고생스럽게 책은 팔아서 무엇하오?

책을 팔아 술을 마시지

책은 모두 당신 것이요? 또 그 뜻을 아시오?

내 비록 책은 없지만 아무개가 어떠어떠한 책을 몇 년 소장하고 있는데 내가 그 책의 일부를 판 것이오. 그 때문에 그 뜻은 모르지만 어떤 책은 누가 지었으며, 누가 주석을 달았고, 몇 권 몇 책인지 다 알 수 있다오. 그런즉 세상의 책이란 책은 다 내 책이요, 세상에 책을 아는 사람도 나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오. 세상에 책이 없어진다면 나는 달리지 않을 것이오, 세상 사람들이 책을 사지 않는다면 내가 날마다 마시고 취할 수도 없을 것이오. 이는 하늘이 세상의 책으로 나에게 명한 바이라, 내 생애를 책으로 마칠까 하오.

옛날 아무개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책을 사들이고 몸도 헌달하더니 지금 그 자손이 책을 팔아 먹고 집이 곤궁한 것을 보게 되오. 내가 책으로 사람을 겪은 것이 많은데, 세상에는 슬기롭고 어리석고 어질고 불초한 사람이 동류끼리 무리를 좇아 쉽듯이 생겨납니다. 내 어찌 세상의 책에 관해서만 통하리오? 장차 이로써 세상의 인간사에도 통할 것이오. 12)

인용문에서처럼 그가 가지고 있는 책의 의미는 자못 의미심장한 바가 있다. 그는 책을 단지 직업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세상을 깨닫기도 한다. 이 부분만 보더라도 정약용이 비판하는 것처럼 욕심이 많아서 책의 이익을 몇 배나 넘게 파는 모습보다는 오히려 “구류, 백가의 글에 대하여 문목과 의례를 섭렵하지 아니한 것이 없고 말을 끊일 사이 없이 잘하여 박사한 군자와 같다.”<sup>13)</sup>는 말이 오히려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조수삼은 이러한 대화

---

든가, 『洪氏盜客』에서 예를 갖추고 신의를 부각시키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윤재민, 「추세기이」의 인물형상과 형상화의 시각, 『한문학논집』4, 근역한문학회, 1986, 257~258면.)

12) 유재건,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譯註, 『이향건문록』, 민음사, 469~470면.

13) 이가원, 앞의 책, 326면.

를 통해 조생이 세속의 것과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음을 알게 해준다. 또한 그의 행동을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있다.

조생은 해가 뜨면 저자 거리로, 골목으로, 서당으로, 관청으로 달렸다. 위로 높은 벼슬아치부터 아래로 『소학』을 읽는 아이에 이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런데 그가 달리는 것은 나는 듯했고, 그의 가슴과 소매에 가득한 것은 책이었다. 책이 팔리면 그 이문을 가지고 술청으로 달려가 마셔 취하고 날이 저물어서야 달려 돌아갔다. 사람들은 그가 사는 곳을 알지 못했고, 또 그가 밥 먹는 것을 보지도 못했다. 배운 한 벌, 짚신 한 켤레로 달리면서 계절과 해가 바뀌어도 변함이 없었다.<sup>14)</sup>

위 인용문에서는 자신의 직업인 책 파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과 함께 결코 이문을 남기기 위한 행위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범상치 않은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논찬부에서 자신의 평을 대신해 인용한 다음의 대목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한번은 조생에게 왜 밥을 먹지 않는냐고 물었더니 “더럽고 깨끗하지 못하다”라 하고, 다시 내게 말했다. “사람들이 오래 살고 싶어 하나 약으로 되는 게 아닐세, 효도하며 우애하는 것을 돈독하게 행하는 것이 양덕(陽德)이라네.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귀찮게 묻지 않도록 그대가 깨우쳐 주시게.”<sup>15)</sup>

앞서 정약용의 「조신선전」의 논찬부에서는 “무릇 신선이라 하면 마음을 맑히고 욕심을 버려야 하는데 조신선은 그렇지 못해 신선이라는 부류도 속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했으나 그와는 정 반대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자신이 오래 사는 이유를 궁금해 하는 사람들에게 효도하며 우애하는 것을 돈독히 하라는 유교적인 덕목을 들어 속태를 벗어나 있는 그의 인품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14) 이가원, 앞의 책, 468면.

15) 위의 책, 471면.

### 3.3. 조희룡 「曹神仙傳」의 인물형상

추사 김정희의 제자로 시(詩)·서(書)·화(畵)에 두루 능했다고 전해지는 조희룡(1789-1866)은 최초로 여향인만을 입전 대상으로 하여 『호산외기(壺山外記)』라는 전기집(傳記集)을 편찬한 전기 작가이기도 하다. 그의 「조신선전」은 조신선에 대해 앞의 두 작품과는 달리 외양에 대한 뚜렷한 부분을 찾아보기 어렵지만 다음 부분에서 약간이나마 그의 인물됨을 찾아볼 수 있다.

아동과 하인들이 모두 조신선이라 가리키면서 혹은 업신여기고 비웃는 일이 있어도 단지 한 번 웃고 말 뿐이었다. (중략) 탈없이 죽었는데 다른 아무 일은 없었다.<sup>16)</sup>

이 작품도 정약용의 전과 마찬가지로 조신선이라는 호칭을 그대로 사용하여 입전하고는 있으나 정약용이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외양과는 달리 아동과 하인들도 그를 ‘조신선’이라 하며 업신여기고 있는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그러한 비웃음에도 그는 단지 한 번 웃고 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그가 신선의 풍모를 지니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조수삼의 전과 함께 여기서 나타난 조신선의 형상도 정약용이 말한 부정적인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또한 신선이라는 호칭이 붙게 된 연유를 밝혀 놓고 있어 스스로 자처해서 불리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나이를 물으면 곧 ‘육십’이라 말한다. 칠십 세가 된 어떤 노인이 말하기를, “자신이 아이 때에 조를 보았는데 그때도 ‘육십’이라 말하였다”고 한다. 이로써 헤아려 보면 백삼사십 세쯤 된다. 그런데도 얼굴 모습은 사십이거나 그도 못 되어 보였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신선이라 칭한 것이다.<sup>17)</sup>

그가 신선이라는 호칭이 붙게 된 이유는 백 살이 넘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삼사십 세 밖에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 것이었

16) 조희룡, 앞의 책, 99면.

17) 위의 책, 99면.

다. 따라서 정약용처럼 그를 신선이라는 가정 하에 속태를 벗지 못하는 인물로 볼 이유는 없다. 이 외에는 작품 내에서 조신선에 대해서 특이하게 생각하고 묘사한 부분은 없으며 책장수로서의 그의 모습은 단지 “동서남북 존비귀천의 집에 발자취가 이르지 않은 곳이 없었다.”<sup>18)</sup>는 것이 전부이다.

논찬부에서는 글과 관련된 신선들에 대한 일화를 간단하게 나열하면서, 이들은 문자 간에 유희한 자들이라고 하여 책도 글과 관련된 것이므로 조신선 또한 문자선(文字仙)을 보충하는 한 가지가 될 것이라고만 하고 있다. 이처럼 조희룡은 그를 신선으로 보는 데 전혀 거리낌이 없었으며 정약용의 작품에서 보였던 의심의 눈초리도 보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 「曹神仙傳」群에 나타난 시각차에 따른 작가의식

앞에서 살펴본 각 작품별로 조신선에 대한 인물 형상이 작가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크게 부정적인 시각과 긍정적인 시각의 편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동일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각의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겠으나, 무엇보다 창작에 임한 작가의 의식을 살펴보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때문에 이 장에서는 입전인물과 작가가 가지는 관계 설정 및 전문학 작품이외의 산문작품 등을 참조하여 이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는 작가의 현실 인식에 관심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 4.1. 작가와 입전인물간의 계층적 관계

주지하다시피 정약용은 반계 유형원(磻溪 柳馨遠 :1622~1673)과 성호 이익(星湖 李瀾: 1681~1763)의 영향을 받아 실학을 집대성한 학자이며 중농학파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정조의 후원에 힘입어 주요 관직을 섭렵하면서 개혁 정책을 펴다가 정조의 죽음으로 귀양을 살다 온 후로는 저술활동에 힘을 기울이고 이후로는 관직에 진출할 뜻을 접게 된다. 비록 몰락한 양반 계층이었지만 관직으로의 진출에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며, 나중에는 스스로 관직에 진출하는 것을 포기하기까지 하였다. 물론 이는 그 당시 노론 중심의 세도

18) 위의 책, 같은 면.

에 밀려 관직에 진출해 보아도 소용없다는 자각에 따른 결과이지 애초부터 불가능했기 때문은 아니었다. 게다가 누구보다도 사대부 의식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 양반 계층의 인물이었다는 것을 그의 개혁의지나 「목민심서」 등과 같은 저술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반면 조수삼과 조희룡은 뛰어난 문재(文才)를 지니고 태어났지만 신분상의 제약이 따르는 중인계층의 인물이다. 중인 계층은 기술직을 세습해 온 의역중인(醫譯中人)과 서얼, 아전이나 서리 등이 증추가 되는데 직업상 일정한 한문 학에 대한 이해를 요구했기 때문에 뛰어난 학문적 성과를 이룩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한품서용(限品敍用)’의 제도 등에 의해 신분상승에 제한이 있었다. 이러한 사회구조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같이하게 된 중인 계층은 그들 내부에서 동질적인 심리적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물들이 바로 시사(詩社)의 조직과 전기집(傳記集) 등의 편찬인 것이다.

때문에 이와 같이 자신의 신분과 관련해 조신선을 어떠한 계층으로 보느냐에 따라 각기 부정적인 시각과 긍정적인 시각으로 나타났으리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지배 계층에 속한 정약용이 항상 강조한 것은 ‘민(民)’이었는데<sup>19)</sup> 여기서 ‘민’은 지배대상으로서의 ‘민’이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그가 민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은 통치하는 데 있어서이지 그도 민과 같은 부류의 인물로 돌아가고자 한 바는 아니었다. 단적인 예로 급진적인 사상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신분타파를 당시에 주장하고 나섰지만 노비를 개혁하지 않은 점은 그의 이러한 사고가 밑바탕에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신분 의식을 바탕으로 한 그가 현실에서 목도한 민의 피폐한 삶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전의 비리와 횡포였다. 집권층과는 다른 방법으로 민에게 직접적인 수탈을 자행하고 있는 아전의 행위는 개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척결되어야만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의식을 지닌 정약용이기에 민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에 대해 그가 보이는 시선은 다분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조신선은 신선의 호칭으로 불리고는 있지만 가장 보호 받아야 할 민의 한 부류인 고아, 과처의 집 깊숙이 간직된 책이라도 그것을 헐값에 사서 비싼 값에 되파는 일을 업으로 하고

19) 진재교, 「茶山 丁若鏞論」, 『漢文教育研究』 12집, 한문교육학회, 1998, 375~379면.

있어 민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 존재다. 때문에 정약용은 그에게 부정적인 시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조수삼과 조희룡은 중인 신분으로서 신분 상승에의 염원은 누구보다 컸다. 조수삼이 여든을 넘겨서까지 과거시험을 치른 것만 보더라도<sup>20)</sup> 유학자로 자처하면서 관직에 나아가지 않는 것을 수척로 여길 정도였다. 그러나 그는 결국 진사시에 합격한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신분 상승에의 욕구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이기에 어쩌면 자신이 중인 계층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자신과 같은 계층이거나 낮은 계층의 사람들에게 비판적인 시선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가 지은 「추재기이(秋齋紀異)」속의 인물들에 대한 시선은 앞서 정약용에게서 보이는 그러한 비판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으며 긍정적인 시선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긍정적인 인물 형상은 조신선에게도 예외는 아니어서 제목에서부터 ‘조신선’이라는 호칭 대신 ‘조생’이라고 하여 자칭 이인전(異人傳)이나 신선전으로 치부될 수 있는 ‘신선’이라는 호칭을 자제하고 논찬부에서만 ‘도(道)를 지니고도 스스로 숨어 완세(玩世)하던 사람’이라고만 했던 것으로 보인다.

「추재기이」에 등장하는 인물들이나 조생은 시정(市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항인들이지만 저마다 독특한 삶의 궤적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엄연히 주류에 영합할 수 없는 제약에 태생적으로 안고 살아간다. 조수삼은 비록 이들과는 다른 처지에 놓여 있지만 신분의 제약으로 인해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펼 수 없다는 점에서는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이러한 상황의 인식이 동류의 식으로 발전하여 말년의 저작인 「추재기이」나 「육서조생전」의 조생을 통해 긍정적인 시선으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조수삼과는 달리 조희룡은 자신의 신분으로는 높은 관직에로의 진출이 불가능함을 깨닫고 일찍이 시·서·화에 눈을 돌려 신분 상승에의 욕구를 타고난 자신의 능력을 통해 예술로 승화시킨 인물이다. 그는 『석우망년록』에서 “재주는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타고 나는 것”<sup>21)</sup>이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그가 말한 재주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술에 대한 능력인

20) 年八十三 中司馬榜 縉紳躬賀者 數十人(조희룡, 『호산외기』, 144면).

21) 조희룡,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譯註, 『조희룡전집』 1, 한길아트, 1999, 144면.

데 이를 통해 보면 조신선이 늙지 않고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자신의 타고난 능력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조희룡은 조신선의 모습이 배워서 얻은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기에 자신과 같은 부류의 인물로 볼 수 있었고 이러한 시각이 조신선에 대한 긍정적인 서술로 나타난 것이라 하겠다.

## 4.2. 현실인식에 따른 작가의식의 차이

당대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도 이들 세 작가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정약용은 급진적인 개혁을 피하기보다는 점진적인 개혁을 위한 실학자로 알려져 있다. 점진적인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의 근본인 농업이 잘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러한 생각은 정전제(井田制) 등의 토지개혁 사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한 그에게 있어서 급변하는 당대 사회의 모습은 그가 조신선을 통해 지적했던 것처럼 말세의 모습에 다름없었을 것이다. 근면하게 농사일을 통해 이익을 얻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쉽게 장사를 하여 이득을 많이 볼 수 있는가에 혈안이 된 당대의 풍경이 그에게는 백성을 더 힘들게 하고 개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조신선의 매매 행위가 좋게 보일 수만은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신선이라는 격에 어울리지 않는 호칭으로 불리고 있으니 그에 대한 반감은 더 컸으리라는 것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반면 중인 계층인 조수삼과 조희룡에게 있어 현실은 아직 변화되지 않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었다. 그들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그들을 인정해 줄 만한 배경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인식은 조희룡이 말년에 지은 것으로 알려진 『석우망년록(石友忘年錄)』에 특히 잘 나타나 있다.

난을 그리는 일이 비록 작은 재주이나 또한 거기에서 얻는 것이 있다. 두어 필획만 있는데도 한 필획도 더할 수 없는 것이 있고 백 획이 있어서 한 획도 줄일 수 없는 것이 있다. 난은 또한 정해진 국면이 있어 함부로 획을 더하고 줄일 수 없다. 이로써 미루어 보건대 천하의 일이 모두 정해진 국면이 있어 흠망령된 생각이 정해진 국면의 밖을 달리게 되면 실패하지 않는 것이 드물다.<sup>22)</sup>

조희룡은 난이라는 사물을 통해 모는 것이 정해진 국면, 즉 지켜야 할 분수가 있음을 이야기 하고 있다. 조희룡에게 있어 지켜야 할 분수란 자신의 신분 에 맞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 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 까닭도 현실이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는, 다시 말해 자신의 이상을 펼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사회 상황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조수삼도 마찬가지로 변화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인식은 공유하고 있으나 여전히 유학자적인 면모를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배운 것을 토대로 하여 현실을 바라보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었다. 「추재기이」의 저작동기를 알 수 있는 자서(自序)에 보면, 자신의 글이 괴력난신에 속한다는 비난만 면하면 될 것이고 자신의 글에 실수가 있는 것은 급히 지어내느라 생긴 것이므로 인사불성의 비난을 면키는 어려울 것<sup>23)</sup>이라 하며 겸양과 자기방어의 논리를 보여 주고 있다. 유학에서 가르치는 겸양의 표현과 당대 사람들 특히 글을 아는 당대 지배층들이 자신의 저작물에 쓰아달 비난의 화살을 이러한 식으로라도 모면하고 싶어 했던 조수삼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

이처럼 능력이 있어도 사회가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들의 시선은 자신과 같은 계층 인물들에 대한 동류의식으로 나아갔을 것이고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던 두 사람에게 조신선은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능력을 제대로 보이지 못하고 속세에 묻혀 사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조신선을 공통적으로 입전하고 있기는 하지만 조희룡이 단순히 그의 범상치 않은 모습에만 긍정적인 시선을 보이고 있는 반면 조수삼의 경우는 유학자의 입장에서 조신선의 비범한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과 함께 교훈적인 면모를 밝히고 있다.

22) 조희룡, 『석우망년록』, 187~188면.

23) 不曰怪力亂神, 吾夫子不語云, 則誠厚幸也. 若其文詞, 之急就, 雜以呻 則烏得免人事不省之謫也 (조수삼, 「秋齋輯」 卷七, 임형택 編, 『이조후기여학문학총서』, 여강출판사, 1991.)

## 5. 결론

지금까지 간략하게 조신선을 다룬 작품 세 편의 구조를 전문학의 양식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 그에 따른 인물 형상화 방식의 차이와 작가의식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신선을 입전한 작품 세 편에서 보이는 인물형상화의 방식을 살펴 본 결과, 정약용의 경우, 조신선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堅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가 조신선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과 논찬부에서 보이는 조신선에 대한 서술은 당대에 새롭게 나타난 직업인으로서의 책거간꾼에 대해 매우 비판적임을 알 수 있었다.

조수삼은 이와는 달리, 외양 묘사보다는 대화를 통해 그의 긍정적인 면모를 드러내고 있으며 논찬부에서도 오래 살 수 있는 방도를 효와 우애에서 찾으라고 한 조신선의 말을 인용하며 평생을 유학자로 지처하며 지낸 조수삼 특유의 긍정적인 묘사가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조희룡의 경우는 조신선이 신선이라고 불리는 데에 전혀 의심을 하지 않으며 오히려 문자선(文字仙)을 보충하는 한 가지가 될 것이라 하며 조수삼과 같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었다.

3장에서는 동일 인물을 입전한 세 작품에서 보이는 이러한 인물 형상화 방식의 차이가 작가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작가와 입전인물의 계층적 관계 및 각 작가들이 지녔던 현실인식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우선 정약용은 몰락한 양반 계층이었지만 엄연히 사대부 의식을 가지고 있는 양반으로서 관직 진출에 제한이 없었던 반면, 한품서용의 국제에 묶여 자신의 신분 상승에 제한이 있었던 조수삼과 조희룡은 중인 계층의 인물이었다. 따라서 조신선을 어떠한 계층의 인물로 보는가에 따라서 이들이 보여주는 시각에 차이는 분명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

특히, 신분상승을 통해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알릴 수 없었던 조수삼, 조희룡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활용하여 조신선과 같이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인물들의 비범한 능력을 후세에 알리기 위하여 조수삼은 「추재기이」를, 조희룡은 『호산외기』를 창작하기도 했는데, 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여항인들은 모두 뛰어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았던 인물들이

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조신선이라는 인물도 그들과 같은 부류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약용처럼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그 능력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처지인 동류의 인물로서 긍정적인 서술이 드러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당대 현실 인식하는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실학자의 한 사람이었던 정약용은 경세치용을 주장한 학자로서 상업이 활성화 되는 것이 그리 달갑지는 않았을 것이고 때문에 서적을 매매하는 업을 가지고 있던 조신선을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조수삼과 조희룡의 경우, 세상은 변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보는 세상은 여전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조신선과 같은 신흥 직업인의 등장은 어찌면 자신들의 계층에 활발한 활동으로 인한 것이기에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인물에 대한 연민의 정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조신선전'군을 통해 전문학 작품이 단순히 한 인물의 행적에 대한 작자의 포폄(褒貶)의식과 그에 따른 작가의식을 살펴보는 것뿐만 아니라 동일 인물을 입전한 작가들의 시각차를 엿보는 데에도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본고는 중인층 작가인 조수삼과 조희룡의 인식 차이를 보다 명확히 하고 사대부 계층으로 대표되는 정약용과 중인 계층의 차이 구분도 보다 면밀히 해야 했으나 능력 부족으로 인해 소홀히 다루었음을 인정해야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약하도록 한다.

## 〈참고문헌〉

### 〈자료〉

- 서유영, 김종권 교수, 『금계필담』, 명문당, 1985.  
유재건,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譯註, 『이향견문록』, 민음사, 1997.  
이가원, 『이조한문소설선』, 교문사, 1984.  
이우성·임형택 譯遍, 『李朝漢文短篇集』中, 일조각, 1996.  
임형택 편, 『이조후기여향문학총서』, 여강출판사, 1991.  
조희룡,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譯註, 『조희룡전집』5, 한길아트, 1999.

### 〈논저〉

- 강명관, 『조선시대 문학예술의 생성공간』, 소명출판, 1999.  
\_\_\_\_\_, 『조선후기 여향문학 연구』, 창작과 비평사, 1997.  
김용남, 「조선후기 중인 작가의 전 연구」,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9.  
김홍식, 「茶山 文學 研究 - 傳을 中心으로」,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6.  
박승림, 「호산외기 연구」, 한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5.  
박홍식, 「다산 정약용의 인간관」, 『유교사상연구』7집, 한국유교학회, 1994.  
박희병, 『한국고전인물전연구』, 한길사, 1992.  
소재영, 「〈傳〉의 근대문학적 성격」, 한국고전문학회, 『근대문학의 형성과정』, 1983.  
유영주, 「조선후기 여향인 전기집 연구 - <호산외기>, <이향견문록>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9.  
윤재민, 「추재기이」 인물형상화와 형상화의 시각, 『한문학논집』4, 근역한문학회, 1986.  
\_\_\_\_\_, 『조선후기 중인층 한문학의 연구』, 고대 민족문화연구원, 1999.  
이동근, 「조선후기 인물전의 전개양상」, 사재동 編, 『한국서사문학사의 연구』5, 중앙문화사, 1995.  
이민희, 『16~19세기 서적 중개상과 소설·서적 유통관계 연구』, 역락,

2007.

정병호, 「趙秀三의 傳 研究」, 『東方漢文學』第13輯, 동방한문학회, 1996.

진재교, 「茶山 丁若鏞論」, 『漢文教育研究』12집, 한문교육학회, 1998.

최준하, 「한국 실학과 사전의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2.

## 【국문초록】

본고는 조선후기 새로운 직업으로 등장한 책 거간꾼을 다룬 「조신선전」이 당대 여러 작가들에 의해 창작된 것에 주목하여 각 작품의 인물형상화 방법과 작가의식의 차이를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전통적인 전의 구조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정약용, 조수삼, 조희룡의 「조신선전」의 인물 형상을 살펴본 결과, 크게 부정적인 시각과 긍정적인 시각의 상반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책 거간꾼이라는 신흥직업인이 신선이라는 호칭으로 불리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보이는 이는 바로 정약용이었고 조수삼과 조희룡은 오히려 그가 신선에 어울리는 모습을 지니고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시각차에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겠지만 우선 작가와 입전인물간의 관계, 작가가 인식하고 있었던 현실관에 따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사대부의식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으며 경세치용을 주장한 정약용은 새롭게 등장한 직업인으로 인해 상업이 활성화되는 것에 비판적이었다. 반대로 조수삼, 조희룡과 같이 입전인물을 자신과 동류의 인물로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했을 때는 긍정적인 시각이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보았다.

주제어: 조신선전, 전(傳), 작가의식, 인물형상, 현실인식

【Abstracts】

## Character shape and author's consciousness of *Josinsunjeon* group

Youn, Tae-Sik

In late Joseon dynasty, new occupation appeared. It is bought and sold a book. At this period, Writers created a work having him so called "Josinsun". These works were created by the same name. Therefore, this paper is intended to study difference of character shape and author's consciousness of *Josinsunjeon* group.

These works are not deviation traditional structure of "jeon(傳)". It seemed to be the result next which it took. one is negative viewpoint by Jeong yak yong. the other is affirmative viewpoint by Jo su sam and Jo hui ryong

The reasons for the difference of the viewpoint are various. this paper is study on relation writers and character, social consciousness of writer. at the result, social class of writers higher or same than the character appeared that this difference.

key words : Josinseonjeon, Jeon(傳), author's consciousness, character shape, social consciousness.

이 논문은 2009년 12월 3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0년 1월 11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0년 2월 1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